한국가족복지학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3, 2008. 8. pp. 263-302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박태영** · 김태한***

본 연구는 홀어머니와 성인인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사례로써,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분화의 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방법과 효과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하여 부인(며느리)이 상담을 의뢰하여 시작되었고, 13회기동안 개인 및 가족상담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상담 축어록과 치료자가 기록한 메모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부호화(coding)작업을 통하여 개념과 하위범주, 그리고 상위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코딩작업을 통하여 발견한 범주들을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시한 관계망(network)와 매트릭스(matrix)를 활용하여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큰아들이 가족을 부양해주기를 원하였지만, 큰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감춰진 불만이 드러나고 모자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런 갈등의 저변에는 가족의 경계선문제, 미분화된 자아,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치료자는 모자갈등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하여 치료적 동맹관계를 형성하였고, 의사소통방식의 지도, 반복되는 패턴의 조명, 재명명, 비유법을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큰아들은 자아분화, 기능적 의사소통의 활성화, 인식의 변화, 경계선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모자갈등의 소거와 더불어 가족관계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책임감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점과 유효한 개입방법들을 보여준다.

주제어 : 가족치료, 의사소통, 가족갈등, 자아분화, 경계선

※ 투고일 - 2008. 6. 20. 심사완료일 - 2008. 7. 9. 게재확정일 - 2008. 7. 16.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제1저자 - 박태영(e-mail: typark@ssu.ac.kr),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 · 교신저자 - 김태한(e-mail: solutionartist@hanmail.net),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전통적인 한국사회는 가족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가정은 가족 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관심보다는 가족의 결속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는 모든 관계를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Kim, 1991),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생활의 목표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었다(송성자, 2001).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서구화되고 다원화되는 사회적 가치와 가족중심의 가치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에서의 이러한 가치충돌과 더불어 가족구성원들은 가족 내에서 세대 간의 가치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가족이 발달주기 상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Carter and McGoldrick, 1989). 새로운 상황의 변화와 적응은 가족기능이 건강할 때에 더욱 쉽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으로는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분위기, 정서 등이 포함되며, 특히 가족 분위기와 정서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깊다(김영희・안상미, 2008). 특히 가족만족도는 가족의 의사소통능력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구성원끼리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의사소통능력도 향상되고, 가족관계의 만족감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주리・허경호, 2004).

한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패턴의 특성은 어머니가 자녀를 심리・사회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여기고, 항상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보면서 자녀의 심리적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등, 어머니와 자녀가 심리적으로 융화된 상태에서 교류한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부각시키기 보다는 자녀를 보살펴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방식은 자녀를 독립시키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 머무르면서 가족구성원들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Berg and Jaya, 1993; 이선혜, 2000 재인용). 특히 첫 아들이거나 외아들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과잉보호를 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문화에서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원가족으로 부터 물리적・

정서적으로 분리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진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서도 아들의 결혼생활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들은 이러한 간섭을 의무, 사랑, 관심으로까지 생각한다(Kim, 1996). 이처럼 자녀와 분리되거나 혹은 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독립하여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자녀도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삶을 살 때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김애순, 2002). 이러한 자녀 독립기와 자녀진수기에서 성인초기 자녀와 부모관계의 주요한 과업은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고, 이전관계에서 가졌던 힘과 통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과 성인 대 성인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Carter and McGoldrick, 1989).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의사소통은 관계를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만약에 가족구성원들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한다면 가족 간의 관계는 악화되고, 반대로 가족구성원들이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한다면 가족성원들 상호간 가치와 의사를 전달하는 가운데 가족성원들은 긴장의 완화, 자신감 획득, 안정감을 얻게 된다(이영미 · 민하영 · 이윤주, 2005).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갈등에 대한 가족치료경험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성인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들이 부족하다.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들과 임상사례들은 꾸준히 보고되고는 있으나 성인자녀와 부모갈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홀로된 어머니와 성년인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모자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역기능적 가족체계의 특성이 갈등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이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갈등에 대한 가족치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 가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MRI의 의사소통이론, Bowen의 가

족체계이론 그리고, Minuchin의 구조주의적 가족치료이론을 활용하였다.

1. MRI의 의사소통이론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달된다고 본다. 첫째는 어려움을 잘못 다루는 것이며, 둘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패와 똑같은 문제 해결방식의 적용이다(Watzlawick, Weakland and Fisch, 1974).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오랫동안 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해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방식들이며, 이것이 종종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악화시키기까지 한다(Goldenberg and Goldenberg, 2001). 따라서 치료자의 일차적 임무는 새로운 혹은 다른 행동을 기존의 행동과 대체하거나, 본래의 문제행동을 "하찮은 문제"로 재평가함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해결책을 소개하는 것이다(Weakland, 1993).

본 사례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큰아들간의 갈등은 계속 같은 문제양상으로 반복되었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제해결방식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각자는 결코 문제해결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치료자는 어머니와 큰아들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방식들을 모자가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큰아들은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습득함으로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관계의 변화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

2. Bowen의 가족체계 이론

Bowen이론의 기초는 자아분화이며 개인이 지적과정과 정서적 과정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개인의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감정과 사고가 너무 융합되어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가족관계면에서 미분화된 가족의 자아군(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은 감정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한 수준의 강렬함 속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며, 친밀도가 너무 강해지면 가족구성원은 서로의 생각, 감정, 환상과 꿈에 대해서도 같이 느끼게 된다(Bowen,

1966; Kerr and Bowen, 1988; Papero, 1995; Goldenberg and Goldenberg, 2001; Nichols and Schwartz, 2002). 자아분화가 안된 경우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추구형은 너무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 유형을 추구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거리감을 두는 관계 유형을 추구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박태영 · 김현경, 2004). 가족은 불안한 2인의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삼각화가 쓰인다. 가족의 융합정도가 높을수록 삼각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더 커지며, 특히 가족 내에서 미분화된 사람이 삼각관계에 개입되기 쉽다(Papero, 1995; Nichols and Schwartz, 2002).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심한 자녀들은 부적응 행동이나 증상을 나타낸다(Fleming and Anderson, 1986; Hoffman and Weiss, 1987). 투사과정에 많이 개입된 자녀는 가족으로부터 지리적 분리나 심리적 벽이나 자기기만으로 자신을 격리하려고 한다. Bowen(1976)은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가족과 정서적 끈을 끊기 위하여 도피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상태를 설명하였다. 관계의 패턴은 세대를 넘어 학습되고 전수되며 현재의 상호작용하는 패턴들에 영향을 준다(Lawson, 1999).

한국문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응집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가족은 동고동락하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된다. 이런 문화의 부작용은 전체로서 가족은 있지만 개인은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미분화된 자아를 가진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살았고, 또한 자신의 방식대로 큰아들도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어머니와 큰아들은 개별성과 연합성의 적절한 현실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 분노와 배신감을 경험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딸과 정서적으로 융합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큰 아들 역시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단절을 추구하였다. 본 사례는 한국의 많은 가족들이 경험하는 자아분화 및 원가족과 분화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화의 문제가 어떻게 가족갈등을 유발하고 치료과정에서 가족성원들의 미분화로 인하여 발생된 갈등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Minuchin의 구조주의적 가족치료 이론

가족구조는 가족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기능적 유형이다.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일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가족의 하위체계들은 대인관계 경계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규제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에 의해 한계가 정해진다(Nichols and Schwartz, 2002). 경계선의 기능은 체계의 분화를 지키는 것이다. 가족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위체계의 경계선이 분명해야만 한다. 이들 경계선은 하위체계 구성원들이 간섭받지 않고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잘 규정되어야 하지만, 하위체계의 구성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김종옥, 1988). 그런데 가족 내의 경계들은 명확한 경계, 경직된 경계, 모호한 경계로 나누어진다. 가족성원들 간의 경계가 명확할 때에는 하위체계들 간에 지지와 의사소통과 협상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가족의 안녕감이 강화된다. 경직된 경계는 하위체계 간에 서로 관계 맺기가 어려워 어떤 하위체계의 가족구성원들도 다른 가족구성원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 모호한 경계는 하위체계 간에 경계선이 매우 불분명하고 구별이 되지 않으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의해서 자신의 경계선이 침해당한다(Goldenberg and Goldenberg, 2001). 구조주의적 가족치료 모델에서는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서 파악하여 개인을 둘러싼 구조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의 구조가 변하면 가족성원들의 경험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Colapinto, 1991).

본 사례에서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세대 간 경계선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녀들과 불분명한 경계선을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어머니에 대하여 경직된 경계선을 구축하였다. 반면 딸은 어머니를 수용하여 어머니와 모호한 경계선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의 부적절한 경계로 인하여 형제하위체계도 약화되었고, 형제간의 협력이나 상호작용이 없었다. 또한 가족은 생활공간 면에서도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관계 면에서 하위체계들이 형성될 만큼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와 경계선의 특성이 가족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치료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선행연구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가족치료의 기원과도 관련이 깊다. 1954년에 Bateson과 동료들은 메이시 재단의 연구를 받아 역설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가족 내 병리적 의사소통 유형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부모-자녀 간의 이중구속(double bind)적 의사소통방식이 정신분열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Wynne(1970)는 정신분열병 가족의 혼돈되고 모호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Goldenberg and Goldenberg, 2001). Becvar와 Becvar(1993)는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였는데 모든 행동은 의사소통이며, 행동과 의사소통은 상황(context)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유형은 상황 내의 환류로 인해 반복되고 문제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편, 1995). Satir(1982)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들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나누었고,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면 가족 간에 진실한 감정소통과 관계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한편, 역기능적 가족들은 간접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은유적인 방식들을 선호한다고 보았다(Satir, 1982; Satir and Baldwin, 1983). 또한 Jonhson과 Bursk(1979)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지리적 가까움보다는 상호 의사소통과 더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일진 · 김태현, 1991).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족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 연구들은 대체로 정의적 측면과 더불어 의사소통과 가족과계,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안현정 · 이소희, 2005). 국내의 가족의사소통의 연구는 주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그리고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박은주 · 김경신, 1995; 최외선 · 김갑숙 · 최선남, 2001;. 정연호 · 류점숙 · 신효식, 2005; 노윤옥 · 전미경, 2006),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문제점과 병리적 증상을 증가시키고(최외선 외, 2001; 권재환 · 이은희, 2006; 최인재, 2007; 김영희 · 안상미, 2008),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부모-자녀의 갈등은 줄어들며(공인숙 · 이은주 · 이주리, 2005), 대화의 양이 많을수록 의사소통능력도 향상되며(한주리 · 허경호, 2005),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소

통 수준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윤옥・전미경, 2006 ; 최외선 외, 2001; 최미혜・김경희・권혜진・김수강, 2005).

반면에, 부모와 성인자녀의 의사소통을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신일진과 김태현(1991)의 연구에 따르면,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의사소통에서 부모가 권위형과 불성실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할 때에 성인 자녀들과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밀형을 사용할 때에 갈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유형으로 노부의 경우 '권위로 인한 갈등문제'(39.8%)가, 노모의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30.3%)문제'를 보여주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갈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타났고, 대화양이 많을수록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일진・김태현, 1991). 또한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자녀들과 부모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한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대학생의 불안 및 공격성향이 높고 대학생활적응이 취약하였다.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 간의 갈등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과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족 및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이영미 외 2005).

안현정과 이소희(2005)는 1987년부터 2004까지의 부모-자녀의사소통에 관련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을 총망라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관련 변인을 찾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은 환경변인군(ES=.346)이 가장 높았고, 부모변인군(ES=.131), 자녀변인군(ES=.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장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응성, 응집력, 대화시간, 가정분위기, 사회경제적 지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의사소통은 가족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개인 및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과 유형을 사용할 때는 관계의 증진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갈등과 가족구성원의 병리적 증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이 처한 환경적 영향력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성인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로 부족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들을 유추해 볼 때에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특성들은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사례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으로 진행되었다. 치료개입이 실시된 가족구성원은 어머니(55세), 큰아들(32세), 며느리(32세), 딸(30세), 작은아들(27세)이었다.

2. 연구 질문

첫째, 어머니와 큰아들 간의 갈등과정과 유지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어머니와 큰아들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갈등의 변화를 이끌어낸 치료자의 개입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가족치료의 효과성은 무엇인가?

3. 신뢰도 검증

Patton(2002)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자료, 이론, 방법론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회기부터 13회기까지 축어록에서 반복되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였고, 치료자와 연구자 그리고 박사과정생들에 의한 연구자의 삼각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6년도 사회복지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조언도 수렴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삼각화를 위하여 상담 축어록과 상담 녹음테이프, 상담 메모를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족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갈등의 요인과 가족관계의 향상을 가져온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중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사례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가족치료의 축어록과 치료 시에 기록된 메모를 원자료로 삼았고, 부호화(coding)과정을 통하여 개념들을 도출하고 개념들의 상위범주를 발견하였다. 또한 Miles와 Huberman(1994)이 주장한 network과 matrix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에서 발견된 개념을 도식화 하였다.

Ⅴ. 연구결과

1. 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발달의 과정과 갈등유지요인

1) 갈등발달의 과정

상담축어록에 나타난 가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큰아들과 어머니가 경험한 갈등의 발달과정을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참조).

첫째는 '갈등시작의 단계'이며, 가족의 구심점으로 모든 일들을 주도하던 아버지가 2002년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족은 위기상황을 경험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큰아들이 가족의 구심점으로서 경제적 책임과 가장역할을 감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큰아들은 혼자서 아버지의 장례식과 사업체를 처리하였고, 취업준비를 위하여 학비를 조달하던 학원의 강사일도 그만두었고, 카드빚을 사용하였다. 또한 장남으로서 가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자기 삶에 대한 욕구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갈등발전의 단계'이며, 어머니는 시골의 집을 처분하여 생긴 돈을 딸과 막내아들에게만 나누어주었다. 어머니는 큰아들은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돈을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서 큰아들은 마음속에 섭섭함을 가졌다. 큰아들은 회사에 취업하여 몇 개월을 다니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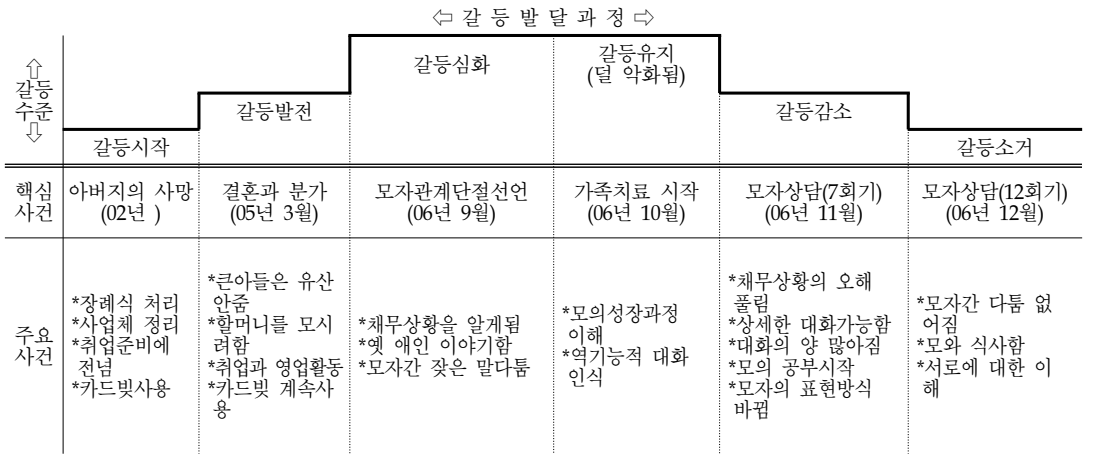
막내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큰아들이 결혼을 미루고 가족을 부양하기 원하였으나 큰아들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다. 또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를 자신이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감정적 대립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셋째는 '갈등심화의 단계'이며, 어머니는 큰아들의 채무상황을 알게 되면서 큰아들을 비난하였다. 큰아들은 대학을 다닐 때에 700만원의 빚이 있었고, 회사에 다니면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빚을 갚지 않고 유지해왔다는 사실로 인하여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었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어머니를 이해시킬 수 없었다. 어머니는 빚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큰아들의 채무 상황은 무조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였고, 며느리에게는 큰아들이 과거에 여자 친구와 놀러 다니느라 빚지는 습관이 들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큰아들의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며느리에게 옛날 여자 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반복되자 큰아들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따졌다. 큰아들은 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언쟁이 커지자 더 이상 모자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넷째는 '갈등유지의 단계'이며, 가족들이 며느리의 권유로 가족치료에 참여하였으며, 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다.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치료자를 만나서 가족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상황을 설명하였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식들이 역기능적임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는 '갈등감소의 단계'이며, 7회기에 어머니와 큰아들의 2인상담을 통하여 큰아들의 채무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오해가 풀렸다. 이전까지는 서로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여도 중간에 단절되고 오히려 언쟁만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치료자의 중재를 통하여 어머니와 큰아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과 사건에 대한 이해를 상세하게 교환함으로 오해가 풀렸다. 뿐만 아니라 모자간의 의사소통방식이 문제를 유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함으로서 관계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여섯째는 '갈등소거의 단계'이며, 12회기에 어머니와 큰아들의 2인상담을 통하여 모자관계가 크게 변화하였다. 어머니와 큰아들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몇 가지 오해들을 풀 수 있었고, 어머니는 큰아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였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모자는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고, 상호지지적인 관심을 가지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림 1] 모자갈등발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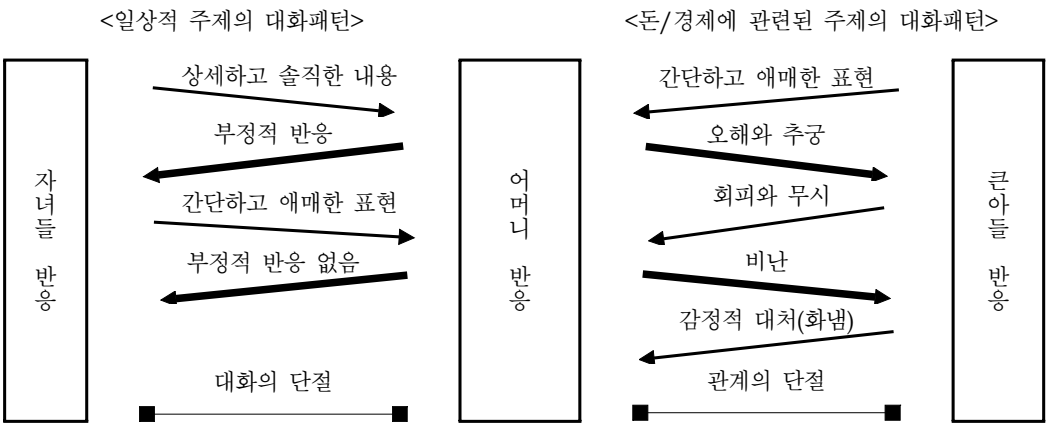
2) 갈등유지요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의사소통방식

가족갈등의 유지요인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의사소통의 방식들은 일상적 수준의 대화패턴과 돈/경제 관련 주제의 대화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상적 주제의 대화패턴을 살펴보면, 자녀들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상적 주제에 대하여 자녀들이 상세하고 솔직하게 내용을 전달하면 우선적으로 나오는 어머니의 반응은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왜 그런 것을 하냐?(추궁)”, “하지 말라(금지)”, “싫다(거부)”, “어, 그래(무관심)” 등과 같은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에 대하여 자녀들은 간단하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어머니를 덜 자극하고,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어머니의 불필요한 간섭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 “자세히 얘기 안하고 그냥 ‘나 무엇해’라고 말하죠. (중략) ‘엄마 나 아르바이트해’ 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뭐하는데?’ 물어보면 ‘학교에서 뭐하는 거 해’ (중략) 그래서 물어보면 ‘교수님하고 뭐 같이 해’. (중략) 그 다음에도 물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교수님과 뭐 조사해. 조사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해’... (중략) 어머니는 ‘알았어’ 그리고 아니

면 '언제 갔다 언제 오고 그래?' 물어보죠. (중략) 지금에 와서는 그냥 뭘 엄마한테 부탁하거나 뭘 해도 일단은 지금 생각은 '아!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얘기를 많이 안하죠." (3회기, 작은아들 진술)

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정서적인 부분이나 해결할 수 없는 비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였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일상적 주제의 대화패턴에서 사용한 문제해결방식은 돈/경제에 관련된 주제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패턴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서 돈/경제라는 주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에게 큰아들의 채무상황은 어머니의 불안을 자극하는 부분이었지만, 큰아들은 상세하고 솔직한 내용으로 해명하기 보다는 간단하고 애매한 표현방식을 사용함으로서 오히려 어머니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어머니의 오해에 대해서 큰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회피와 무시의 방식을 사용하였고, 어머니는 더 큰 오해와 비난으로 반응하였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관계의 단절까지 발생하였다.



[그림 2]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의사소통 방식

2. 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가족갈등의 요인에 대한 하위범주는 16개, 중간범주는 7개로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는 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 원가족 부양의 책임을 회피함, 채무를 갚지 않음, 경제적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됨, 동생들 앞에서 권위를 깎음, 채무상황을 무조건 용납안함, 며느리에게 큰아들의 옛 애인 이야기를 함,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원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 아버지의 의사소통방식, 큰아들의 의사소통방식, 딸의 의사소통 방식, 작은아들의 의사소통방식, 아버지의 모호한 경계선, 어머니의 모호한 경계선, 형제하위체계의 약화, 어머니의 미분화된 자아, 큰아들의 정서적 단절, 어머니와 딸의 삼각화이었다. 중간범주로는 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 어머니의 불만, 큰아들의 불만,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경계선의 문제, 미분화된 가족이었다.

1) 어머니의 불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딸이 결혼하고 막내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원하였다. 그러나 큰아들은 취업이후 곧바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여 분가하였다. 더군다나 차남이었던 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보느라 가족을 소외시킨 것처럼 큰아들이 할머니를 모시려고 하자 어머니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 "솔직히 장가가기 전에는, 우리 아저씨가 갑자기 죽고 나니 큰아들을 의지했죠. 그런데 보니까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마음을 접었죠. (중략) 지가 집안을 생각하고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동생이 학교다니는데, 엄마 혼자 있고 하면 당장 장가간다는 생각이 나와요? 돈이 하나도 여유가 없는데 그러면 빚을 얻어서 장가도 가야되고 방도 얻어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빚지는데... 생각 없이." (5회기, 어머니 진술)

어머니는 큰아들의 연봉이 3,0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빚을 2,000만원이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대학 다닐 때에도 빚이 700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큰 아들이 여자 친구와 놀러 다니느라 빚을 졌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표 1> 개념추출과 범주화

개 념	하위 범주	중간범주	상위 범주
대화가 안 되고 싸움이 됨, 똑같은 소리를 반복함, 전기장판을 들썩거림, 소리치고 문을 꽝 닫고 나감, 모자관계의 단절선언 등	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		모자갈등의 요인
큰아들의 결혼, 동생들을 챙기지 않음, 할머니를 모시려함 등	원가족 부양의 책임을 회피함	어머니의 불만	
어머니의 근검절약의 생활, 큰아들이 빚을 안 갚음, 빚을 지면 안 되는 어머니의 사고방식 등	채무를 갚지 않음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음, 수익 없이 계속 투자, 손해보고 부동산매각 등	경제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됨		
큰아들에 대한 비난, 큰아들 대우를 받을 자격 없음, 이기적 태도 등	동생들 앞에서 권위를 깎음	큰아들의 불만	
회사의 영업방식을 모름, 어머니의 잣대로 비교, 여러 번 말해도 이해 못함 등	채무상황을 무조건 용납안함		
옛 애인 때문에 카드빚 습관화됨,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부부갈등발생 등	아내에게 옛 애인 이야기를 함		
부모를 잃고 조부모와 숙부 밑에서 성장함, 무서운 조부, 조부와 숙부의 거친 표현, 대화 없는 집안분위기, 숙모가 눈치 줌, 대화상대자 없이 성장 등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원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대화를 좋아하지 않음, 감정표현을 못함, 부정적 언어표현, 화나면 침묵 등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자세히 말 안함, 뒤늦게 말함, 참다가 폭발, 말을 잘 안함, 문 꽝 닫고 나가버림 등	큰아들의 의사소통방식		
어머니의 요구를 묵살, 부채에 대한 언급 없음, 서로 대화 없음 등	큰아들과 어머니의 경직된 경계선	경계선의 문제	
같은 공간에서 취식, 어머니의 뜻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짐, 상호책임감 느낌 등	딸과 어머니의 모호한 경계선		
서로에게 무관심, 바빠서 대화(식사)나눌 시간도 없음, 함께 모인 적이 없음 등	형제하위체계의 약화		
큰아들, 딸에 대한 배신감, 사업에 대한 불안감, 자신을 위해 돈 못씀 등	어머니의 미분화된 자아	자아의 미분화	
집에 들어가기 싫음, 어머니를 안보기로 결심, 어머니로 인정 못함 등	큰아들의 정서적 단절		
딸을 너무 감쌈, 제일 가까움, 가족 위해 희생함, 엄마의 감정대변 등	어머니와 딸의 삼각화		

게 매월 30만원을 받아서 생활하면서도 5만원을 남겨서 저축도 하였기 때문에 큰아들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직장생활을 5년 한 사람이, 연봉이 3,000이 되는 사람이 그까짓 것 빚을 못 갚고 여태껏 빚에서 허덕거리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전 돈 조금이래도 30만원 가지면 25만원 가지고 생활하고, 5만원은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중략) 애초부터 (빚을) 안 지게 만들었어야지." (5회기 어머니 진술)

어머니는 큰아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빚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다.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며느리에게 생활비조차 주지 못하고, 막내아들까지도 동업자로 끌어들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큰아들도 무모하게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였다. 어머니는 남편이 빚으로 가족을 매우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빚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빚이 있다면 돈 쓸 일이 있어도 쓰고 싶다는 이야기조차 못 꺼내고, 삶이 찌들려지니까 (울음)." (7회기, 어머니 진술)

2) 큰아들의 불만

큰아들은 어머니가 동생들 앞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자기만 잘살기 위하여 가족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자존심이 상하였고, 형제들과도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후처리를 혼자서 다 감당하였지만 가족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장남의 위신이 깎여버렸다.

"집에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형이고 장남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좋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니까 무조건 안 좋게 이야기하시고." (7회기, 큰아들 진술)

큰아들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전화를 오래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결혼하는 것' 등에 돈을 관련지어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고, 회사의 영업 방식으로 인해서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어머니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왜 빚을 지고 사느냐?'와 같은 반복되는 비난을 들었다.

> "어머니가 주로 얘기는 왜 빚을 지냐고, 그렇게 힘들게... 형은 살다보면 빚도 지고... 일단 자기는 빚을 안지고 아버지에게 30만원 받고 너네들 다 키웠는데, 너 네들은 왜 빚지고 사냐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현실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자꾸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은 왜 엄마 입장에서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왜 빚을 지냐고? 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얼마씩 받는데 왜 빚을 지냐고? (중략) 엄마는 또 왜 빚을 지냐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를...반복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3회기, 작은아들 진술)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큰아들이 옛날에 여자 친구와 놀러 다니면서 빚지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며느리는 남편의 옛날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나온 이야기라고 변명을 하였다. 며느리는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반복한다고 따지면서 부부간, 모자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 "(부부사이에) 둘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어머니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중략) 경제적으로 빚진 것이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세요. (중략) 계속 그 일이 반복되니까 아내랑 같이 가서 얘기하고, 저도 가서 얘기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꺼내세요. (중략)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어머니의 반응은 '뭐 어떠냐?' (중략) 뭐 어떠냐? 이게 못할 이야기냐? 이게 더 미치는 거죠." (1회기 큰아들 진술)

3)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원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친정아버지'는 6.25전쟁 때에 전사하였고, '친정어머니'는 어머니가 4세경에 사망하였고, 그 이후 '조부모'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이때는 조부모의 관심을 받으며 명랑하고 활달하게 자랐으나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에 조부모가 각각 사망하자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23세까지 성장하였다. 당시에 '작은 아버지'는 대학을 다녀서 방학 때만 집에 왔고, 주 양육자는 '작은 어머니'였다. '작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무엇을 물어보면 무섭게 소리를 질러서 내쫓곤 하는데, 반면에 조카인 어머니에게는 공부도 가르쳐주고 관심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작은 어머니'는 어머니를 시샘하였고, 눈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가정에서 편안한 대화 상대자가 없었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어머니가 경험한 원가족(조부, 작은 아버지)의 의사소통방식은 말이 별로 없고, '싹싹'하고 '조근 조근'한 것이 아니라 무섭고 거칠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조부모와 마찬가지로 숙부모간에도 대화는 없었다.

<표 2>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원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구분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의사소통 방식1	무섭게 표현함(동네호랑이라 불림)	자녀들에게 무섭게 소리를 지름	어머니를 질투함
의사소통 방식2	조근 조근 이야기 못함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어머니에게 눈치를 줌
의사소통 방식3	부부간 대화가 없었음	부부간 대화가 안됨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음

4) 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어머니는 대체로 말이 없었고,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반대와 거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선 표현함으로서 대화가 끊기게 만들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지 않다가 돈/경제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현하여 자녀들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큰아들은 말을 잘 안하는 편이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큰아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식이었다. 큰아들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남에게 꺼내지 않으며, 화나는 일을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여 가족을 놀라게 하였다.

<표 3> 모자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구분	대화가 서투름	분노조절	일방적 태도	정서표현
어머니	*대화를 좋아하지 않음 *말을 잘 안함	*화나면 말 안 하고 밖에 나감	*무조건적 반대와 거부 *욕설, 거친말, 무례함 *돈/경제에 통제와 비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 (남의 일처럼 말함)
큰아들	*말을 잘 안함 *사실을 상세히 표현안함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말함	*화를 참다가 문을 박차고 나감	*부인,어머니와 상의없이 중요한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함	*힘든 이야기를 안꺼냄

5) 경계선의 문제

어머니와 큰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로 경계선이 경직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충돌이 생기면서는 경직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교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큰아들과는 경직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딸과 모호한 경계선을 유지함으로서 정서적으로 서로 의존하였으며, 모녀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등 생활에서 적절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였다. 딸은 큰아들(오빠)이 가족을 책임지지 않고 결혼하여 분가한 것으로 인하여 큰아들(오빠)과 경직된 경계선을 이루었다. 또한 큰아들(오빠)은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딸(여동생)과 경직된 경계선을 유지하였다. 막내아들은 사회에서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 안에서는 누구와도 최소한으로 교류하는 경직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다. 형제들이 경직된 경계선을 유지하므로 형제하위체계는 약화되었고, 형제간에는 우애나 협력보다는 무관심이 더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표 4> 가족 경계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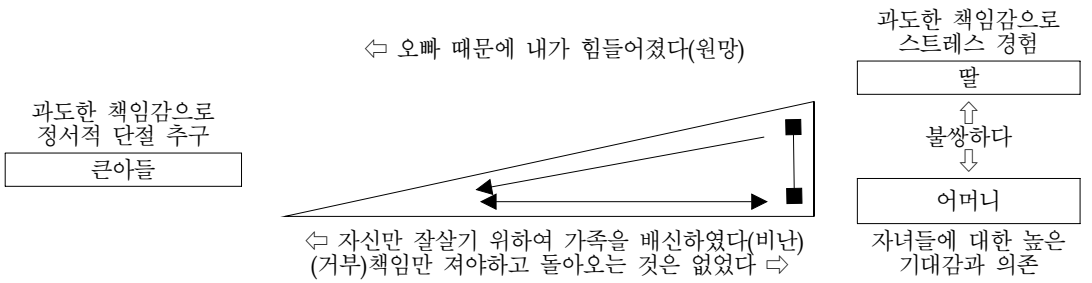
구분	어머니	큰아들	딸	막내아들
큰아들	경직	-	경직	경직
딸	모호	-	-	경직
막내아들	경직	-	-	-

6) 자아의 미분화

어머니는 가정생활에서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았다. 어

머니는 자신의 삶이 없었기에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였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자신의 생활방식 대로 살아주고 자신의 기대감을 채워주기 바랐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배신감과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아들 대신에 딸에게 가족부양의 책임을 전가하였고, 딸은 매달 월급의 2/3를 어머니에게 제공하였고, 어머니처럼 '자신의 삶'이 없이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반면 큰아들은 어머니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하여 원가족과 분리를 시도하였다. 큰아들은 결혼을 통하여 가족과 정서적 단절을 시도하여 형식적인 독립을 성취하였으나 여전히 가족과 미해결된 정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딸은 아들과 삼각화를 이루면서 책임감을 져버린 큰아들을 비난하고 공동의존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딸은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그림 3] 자아미분화와 삼각화 구조

3. 치료자의 개입방법

치료자의 개입방법은 11개의 하위범주, 5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는 자녀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기, 적극적 경청, 사실적・구체적 언어표현,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격려함, 세대 간 반복되는 패턴, 가족생활패턴, 대상의 재해석, 의미의 재해석, 유사한 사례의 비유, 치료자의 자기노출이었으며, 중간범주로는 치료적 동맹관계 형성, 의사소통 방식의 지도, 반복되는 패턴의 조명, 재명명, 비유법이었다.

<표 5> 개념추출과 범주화

개 념	하위 범주	중간범주	상위 범주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공감, 자녀의 초치는 느낌을 전달, 자녀의 부정적 감정의 대변, 절약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 이해, 어머니의 표현법에 대한 오해 등	자녀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치료적 동맹관계 형성	치료자 개입의 방법
아버지의 과잉역할로 괴로운 경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섭섭함을 전달 등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함, 말을 끊는 방식을 제지 등	적극적 경청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지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말로 표현하기, 사소한 것도 대화주제로 활용 등	사실적, 구체적 언어 표현		
상대방에게 미운감정, 화나는 감정, 미안한 감정, 서운한 감정 등의 표현격려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격려함		
성장과정에서 습득된 대처방식, 아버지와 큰아들의 유사성 등	세대 간 반복되는 패턴	반복되는 패턴의 조명	
화날 때의 표현 방식, 사업에 대해 불안한 이유, 참았다고 폭발하는 방식, 대화법을 못 배우고 자란 점 등	가족생활 패턴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표현방식이 비효과적임 등	대상의 재해석	재명명	
돈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이 원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었음 등	의미의 재해석		
상대방을 비난하는 부부, 부정적 표현방식으로 갈등 있는 부부 등	유사한 사례의 비유	비유법	
돈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어머니의 모습,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경험 등	치료자의 자기노출		

1) 치료적 동맹관계 형성

가족들은 지적기능과 감정기능의 적절한 분화가 어려운 대상들이었고, 자칫 상담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치료자가 가족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대상과 동맹관계를 맺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구조주의적 가족치료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기도 한데, 가족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치료자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불만을 자녀들의 편에 서서 지지하고, 자녀들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어머니가 느끼는 불만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편들고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치료자는 상반된 가족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교류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가족간에 서로 전달할 수 없었던 불편한 내용들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게 하였다.

"(큰)아드님이나 며느님 입장에서는 또 언제 엄마가 언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서 부부관계에 불똥이 튈거 아닙니까? 그 말 들으면 며느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남편한테 오고, 남편이 받은 스트레스는 또 어머니한테 오고 엄마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왜 엄마 만나면 그 이야기가 언제 불쑥 나올지 모르는데... (중략) 결혼한 와이프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뭔 짓을 했길래 돈을 썼겠냐? 여자한테 그렇게...나와 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관계였길래..." (7회기, 치료자진술)

"어머니께서 생각하셨을 때에는 큰아들은 대학도 나왔고, 등록금도 대줬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저거 빚도 카드 빚도 예를 들면 5백 몇, 7백 몇 까줬고, 어머니 나름대로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 머리 속으로는 큰아들에게 이만큼 갔으니까 지금 둘째는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희생했다면 했고, 집안 살림에 도움을 줘왔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걸려서 (중략) 작은아들은 어쨌피 학생으로서 등록금을 (후략)" (11회기, 치료자 진술)

치료자는 가족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지를 '치료자 자신'을 사용하여 가족들에게 경험시켜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일종의 모델링이며, 가족들은 치료자가 어떠한 주제이든지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적 반응을 해주는 것을 경험함으로서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방식을 체험하게 되었다. 치료 장면에서 어느 한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치료자가 제지하여 이야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다.

"끊지 마세요." (7회기, 아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가로막을 때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이야기 끊지 마시고요." (7회기, 어머니가 아들의 이야기를 가로막을 때에) "잠깐만요, 끊지 마시고요. 동생 말씀하시는데... " (13회기, 큰아들이 동생의 말에 끼어들 때에)

치료자는 어머니와 큰아들 간에 발생하였던 과거 사건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내었다. 사건의 배경과 의도 등을 수사관이 탐문하듯이 상세하게 추적하면서 밝혀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머니와 큰아들은 서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일례로, 어머니는 큰아들이 여자 친구와 놀러 다니느라 빚을 졌다고 믿고 있었는데 치료자는 큰아들에게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질문함으로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과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함께 어머니가 오해할까봐 말하지 않았던 '고모부에게 준 사례비 200만원'도 밝히면서 큰아들의 빚에 관련된 어머니의 오해를 풀 수 있었다. 또한 큰아들은 어머

니가 장모에게 '우리 아들이 돈 못 버니까 밥주지 말라'고 한 말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구체적인 과정을 추적하다보니 장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말한 것이고, 그것이 장모에게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의도는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표현했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큰아들의 오해가 풀렸다.

2)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지도

가족은 익숙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선호하고, 이를 문제해결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지속된다. 따라서 치료자는 새로운 문제해결방식 즉, 시도되지 않았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을 경험시키고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치료자는 가족들에게 상대방이 어떤 주제로 말하던지 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도록 요구하였다. 상대방이 말할 때에 다른 가족성원이 부정적 표현을 하거나, 말을 끊어버리면 다음번 대화에서는 가족성원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대화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머니가 이해를 하시든 안하시든 아드님이 이해하시든 안하시든, 일단 표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받아준다는 거죠" (12회기, 치료자진술)

치료자는 의사소통에서 언어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방식보다는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소한 주제라도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 "아드님은 어머님하고 대화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얘기를 길게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렇게? 조목조목?" (12회기, 치료자진술)

치료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족들이 갈등을 우려하여 꺼내놓지 못하였던 서로에 대한 불편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가족성원들의 이러한 솔직한 감정의 표현들은 가족 간의 정서적 접촉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지금 아드님이 어머니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보다 할머니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어머니의 섭섭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중략) 아드님

은 지금 어머니의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 할 말 있나요?" (7회기, 치료자 진술)

3) 반복되는 패턴의 조명

Bowen(1966)은 가족 안에서 세대를 이어서 반복되는 패턴 즉 다세대 전수과정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미분화된 자아군의 영향이면서 가족의 증상이나 관계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패턴의 조명은 가족들로 하여금 자아분화를 촉진시키고, 자녀와 관계에서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부정적 표현으로 큰아들과 대화를 차단하는 어머니의 언어습관들은 '작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성장과정에 있음을 직면시켰다. 어머니는 자신의 언어습관을 '무의식적'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치료자는 어머니가 작은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답습한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작은 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느꼈을 거 아니에요? (중략) 당연히 받으셨겠죠. 미워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겠냐 이거에요. 작은 어머니 표정과 말투에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추측하는 것은 작은 어머니의 그런 표현을 어머니가 사시면서 은연중에 혹시 답습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7회기, 치료자진술)

치료자는 가족의 미분화된 가족자아군도 세대 간에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할머니에 대한 과도한 역할을 한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많은 빚을 짐으로서 가족을 힘들게 한 것을 큰아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어머니께서 왜 큰아들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나 봤더니, 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과도한 역할을 했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할머니하고 관계에서 아버지도 분리를 못했는데, 큰아들도 거기서 아버지 모습을 닮았다는 거에요. 이해하셨죠?" (11회기, 치료자진술)

치료자는 가족성원들에게 가족의 생활방식에서도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들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가족들은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위기상황을 풀어가지 못하고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하였다. 따라서 치료자는 가족들이 서로 반응하는 역기능적 방식의 패턴을 가족들이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대부분 모든 가족들이 다 비슷합니까? (중략) 따님도 비슷하고 막내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중략) 그러면 오빠가 폭발했을 때 그 다음에 동생들은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중략) 근데 따님이 화내는 방식은 지금 동생한테 화를 내는 방식이나 엄마한테 화를 냈던 방식하고 유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13회기, 치료자진술)

4) 재명명

재명명은 의사소통모델이나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모든 행동에는 부정적 면과 긍정적 면이 존재하므로 부정적 행동에 긍정적 암시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치료자는 '특정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나 다른 요인들(표현방식 등)을 문제라고 재해석하였다. 즉, 사람과 문제요소를 분리시킴으로서 관계의 본질은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께서 아드님에 대해서 사랑을 안 하거나 배려를 안 하거나 무시했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7회기, 치료자진술)

또한 치료자는 어떤 행위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서 실제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은 변화하지 않지만 가족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의 특성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웃음) 근데 밥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걸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밥주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13회기, 치료자 진술)

5) 비유법

Bowen의 가족치료에서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도록 비슷한 사례들을 들려준다. 치료자는 가족이 당면한 문제 상황을 직면시키기 보다는 비슷한 상황의 예를 들어줌으로서 가족들의 저항을 줄이고 조금 더 이해와 수용이 쉽도록 유도하였다. 가족들은 유사한 사례를 듣고서 '아, 내 상황과 비슷하구나. 우리 가족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객관적인 통찰을 얻게 만들었다.

"이 딸의 문제를 남편은 여편네가 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니가 욕을 하고 자꾸 애한테 욕을 하고 애를 잘 간수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딸의 문제는 부부문제이고, 이 엄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딸에게 잘 대하게 하려면 남편이 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략)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이쪽 탓을 하는 거에요." (13회기, 치료자진술)

치료자는 자신의 경험을 노출하면서 가족들이 객관적인 통찰을 얻도록 하였다. 특히 딱딱하고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는 상담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치료자의 인간적 측면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희 어머니도 식당가면 이거 얼마냐? 1인당 5,000원에서 8,000원짜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1인당 20,000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분위기 바뀌어요. (중략) 식당 다 예약해 놓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파토 낸 거에요. 돈 든다고 돈 쓴다고 저하고 바로 위에 형이 돈 쓴다고 그래가지고...(중략) 엄마를 위해서 모였는데 완전히 분위기 다 깨놔 가지고." (13회기, 치료자진술)

<표 6> 치료자의 개입방법

구분	전략 1	전략 2	전략 3
치료적 동맹관계 형성	상반된 관점을 편들기	치료자를 통한 새로운 대화방식의 경험	오해 있는 사건의 배경과 의도를 밝힘
의사소통의 지도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게함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격려
반복되는 패턴의 조명	원가족의 영향력 탐색	세대 간 반복되는 패턴을 지적함	생활에서 반복되는 갈등패턴 조명
재해석	대상에 대한 재해석	의미에 대한 재해석	
비유법	유사한 사례의 예를 들음	치료자의 자기노출	

4. 가족치료의 효과성

가족치료의 효과성은 10개의 하위범주와 4개의 중간범주로 도출되었다. 하위범주는 의사소통의 방식변화, 대화의 양적증가, 솔직한 감정의 전달, 순환적 패턴의 인식, 타인의 입장이해, 어머니의 자아분화, 큰아들의 정서적 연결, 형제하위체계의 강화, 딸의 부드러워진 경계선, 어머니의 명확해진 경계선이었으며, 중간범주로는 기능적 의사소통의 활성화, 인식의 변화, 자아분화, 경계선의 변화이었다.

<표 7> 개념추출과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중간범주	상위범주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표현, 감정을 자제함, 다정한 표현, 이해하려는 노력, 듣는 사람이 좋게 느끼도록 말함 등	의사소통의 방식 변화	기능적 의사소통의 활성화	가족치료의 효과성
대화하려고 의도적 노력, 사소한 것도 말함, 대화의 시간증가 등	대화의 양적 증가		
서운함, 격려와 위로가 필요, 큰아들의 본심, 화내는 것의 무서움, 어머니의 표현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	솔직한 감정의 전달		
어머니의 표현방식을 자녀들이 답습, 가족 간 합의가 안 됨, 자기 이야기만 함 등	순환적 패턴의 인식	인식의 변화	
딸의 슬픔, 자녀의 불만, 어머니의 본심과 감정, 큰아들의 느낌, 딸의 고민 등	타인의 입장이해		
사회복지공부시작, 식사비 지불, 자기성찰, 감정인식, 타인감정을 배려 등	어머니의 자아분화	자아분화	
어머니 심정을 이해, 어머니와 갈등 없음, 모자간 대화가능 등	큰아들의 정서적 연결		
형제끼리 외식함, 딸과 며느리관계회복, 형제간 대화 증가, 고민에 대한 논의 등	형제하위체계의 강화	경계선의 변화	
큰아들(오빠)의 고민을 이해, 큰아들(오빠)을 도우려함,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눔 등	딸의 부드러워진 경계선		
옛 여자 친구 이야기를 안함, 조심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함 등	어머니의 명확해진 경계선		

1) 가족관계의 변화수준

가족치료에 참여하기 이전의 개별적인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딸은 각각 큰 아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반면, 어머니와 딸은 관계가 좋았으며, 막내아들은 가족들과 보통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가족치료에 참여한 이후로 가족관계는 변화하였는데, 큰아들은 어머니, 여동생(딸)과 각각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막내아들은 다른 가족성원들과 매우 좋은 관계로 바뀌었다.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전체로서 가족을 살펴보았을 때에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이라는 소속감과 상호작용이 부족하였고, 정서적으로 교류가 차단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은 새로운 관계의 기술들을 배우면서 세대 간의 경계선도 가지게 되었고, 형제하위체계도 강화되었고, 개별성과 전체성의 조화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어머니	큰아들	딸	막내아들	
어머니		⇩	⇧	⇨	치료 전 가족관계
큰아들	⬆		⇩	⇨	
딸	➡	⬆		⇨	
막내아들	⬆⬆	⬆⬆	⬆⬆		
	치료 후 가족관계				

※ ⇩=나빴음 ⇧=좋았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아주 좋아짐 ⬆=좋아짐 ➡=그대로임

[그림 4] 가족관계의 변화수준

2) 기능적 의사소통의 활성화

가족들은 표현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표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듣거나, 다정한 표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등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차단하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보였고, 가족들과 대화를 안 하던 막내아들은 형제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문자메시지로 안부 인사를 건네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예전 같으면 뭐,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거나. 특별하게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서 가족이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누가 아프냐? 이렇게 바람쐬지 마라. 그런 말들을 이제 하시니까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죠." (11회기, 큰아들 진술)

가족들의 표현방식이 바뀌면서 대화의 양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대화가 차단되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이전에 불필요하게 여겼던 내용들까지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작은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전에는) 엄마, 돈, 밥. 딱 이 소리 외에는 안했거든요. 너는 임마, 엄마, 돈, 밥 뿐이 모르냐? 그랬거든요? 집에 와서 전혀 입을 안 띠었어요. 근데 요새 여기서 치료 받고 나서부터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엄마, 어쩌구 저쩌구 꺼내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받아서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지금요. 그전에는 전혀 입 봉하고 엄마, 밥, 돈, 딱 이 소리뿐이 안했어요. 세 소리 뿐이 안 했어요." (13회기, 어머니 진술)

치료자는 가족들에게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격려하였고, 치료 장면에서도 서로 표현하도록 중재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신들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을 통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화내는 방식을) 별로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는 생각을 안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오빠가 그러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13회기, 큰아들 진술)

3) 경계선의 변화

가족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큰아들의 옛날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상담 후반부로 갈수록 타인을 자극할 수 있는 태도를 스스로 자제하였다. 자녀들의 형제하위체계가 강화되어서 이전보다 더 친밀함을 느끼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

"아, 내가 말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며느리한테는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이제부터 싫은 소리 안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중략) 내가 잘 못 생각했구나. 며느리는 며느리구나. 내 아들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텐데... (중략) 어쨌든 간에 내가 조심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으니까 그런(옛 애인에 대해서 말하는) 일은 없을 거다. 걱정마." (13회기, 어머니 진술)

4) 자아분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대신에 자녀들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였고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들과 대화를 통하여 자기 모습을 성찰하였고, 노후대책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하여 자격증 공부도 시작하였다.

"나이 먹으면 할 일을 좀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거(사회복지) 배우고 현장에 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중략)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만 배우는 대로 그렇게 신청했는데... (중략) 내 노후대책도 생각하면서 (중략) 취직이 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회기, 어머니 진술)

어머니와 대립하면서 정서적 단절을 추구했던 아들은 치료과정을 통하여 어머니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큰아들은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화를 회피하고 갈등을 겪었지만 가족치료를 통하여 어머니와 갈등도 줄어들었고, 이전처럼 폭력적인 모습도 발생하지 않았다.

"마음은 알죠. 걱정이 되고, 잘됐으면 하는 건데 말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사실은 마음보다는.. 마음 헤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략) 제가 자꾸 그렇게 우기니까 또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죠. 자기 본심은 장남으로 인정 안한 것은 아닌데... 제가 자꾸 그런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왜 저러나? 하실 수 있겠지만, 본심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서운한 생각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말이 그렇게 나왔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13회기, 큰아들 진술)

5) 인식의 변화

가족들은 한 사람의 반응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되돌아오는

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가족들이 서로 자기주장만 함으로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는 자신의 부정적 표현방식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백히 인식하게 되었다.

> (중략) "난 내 생각만 하고 그 이야기를 잘랐는데, (말) 하려고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겠네. (중략) 그전에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7회기 어머니 진술)

가족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개인상담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가족을 전체로 만나는 과정에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은 그동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치료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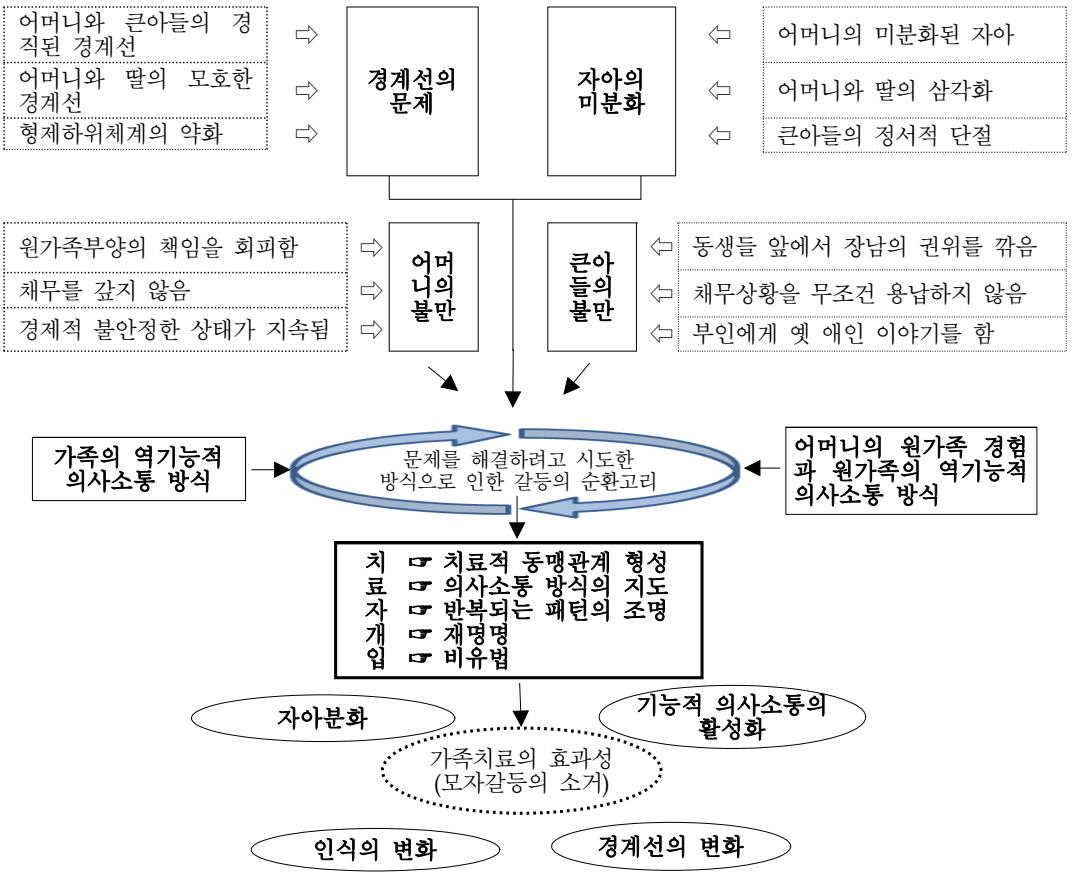
>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 애들은 불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불만을 가슴에 쌓아놓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중략) 딸도 그렇고 작은아들도 그렇고 큰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슴에 많이 쌓여 있는 걸 몰랐어요." (10회기, 어머니 진술)

<표 8> 가족치료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구분	어머니	큰아들	딸	작은아들
기능적 의사소통의 활성화	*자녀에게 정서적 표현을 함 *의견이 달라도 끝까지 들어줌 *자녀와 풍부한 대화를 시도함	*형제들과 대화의 양이 늘어남 *모에게 섭섭했던 감정표현 *오해를 풀도록 상세히 말함	*형제들과 대화의 양이 늘어남 *큰아들(오빠)에게 부드럽게 말함 *자신의 힘든 것을 조금씩 표현	*형제들과 대화의 양이 늘어남 *형제에게 문자메시지 보냄 *먼저 이야기를 꺼냄
경계선의 변화	*큰아들의 옛 애인 이야기를 안함 *타인을 자극하는 태도를 자제함 *며느리에게 신경을 써줌	*형제들에게 친밀함을 느낌 *형제들의 모임을 주도함	*큰아들(오빠)을 돕기로 함 *며느리와 올케 관계가 회복됨 *형제들에게 친밀감을 느낌	*형제들과 친밀함을 느낌
자아분화	*노후대책으로 자격증 준비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춤	*분노의 감정을 자제할 수 있음 *모를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	*모에게 제공하는 돈을 형제들과 분담하기로 함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완화됨	
인식변화	*큰아들의 채무에 대한 인정함 *자녀들의 마음속 불만을 이해함 *적절한 대화법을 몰랐다고 인정 *부정적 표현의 영향력 인식 *자신의 원가족 영향력을 이해	*딸의 스트레스를 알게 됨 *모의 섭섭함을 인정함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발견 *모의 외로워함을 인식함 *모의 성장과정을 통한 모의 이해	*큰아들(오빠)의 고민을 이해함 *가족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안 들음을 발견	*딸(누나)의 스트레스를 알게 됨 *합의가 안 되는 대화방식을 인식

5. 치료과정 및 내용에 대한 네트워크

부호화를 통하여 추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그림 5]과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전체 치료과정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림 5] 치료과정의 네트워크

Ⅵ. 결론

본 연구는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사례연구로서 치료자는 13회기 동안 개별상담과 가족상담을 진행하였다. 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은 가족의 역기능적

구조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큰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하여 가족을 책임져주기를 원하였으나 큰아들은 가족이 부담스럽고, 가족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큰아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운데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놓였고, 돈에 관련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머니는 큰아들을 비난하였고, 큰아들은 비난하는 어머니에게 감정폭발을 하는 반응을 함으로서 모자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족의 체계적 특성 중에서 미분화된 자아상태, 부적절한 경계선은 가족의 변화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미분화된 자아상태를 가진 어머니와 딸은 가장의 역할을 회피한 큰아들에 대한 반감으로 큰아들과 삼각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큰아들은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새로운 가족발달단계에 진입하였을 때에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의사소통방식은 오히려 가족성원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가족갈등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치료자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들과 치료적 동맹관계를 형성하였고,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을 지도하였고, 반복되는 패턴을 조명하였고, 재해석과 비유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족개입으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었고, 경계선이 새롭게 구조화되었고, 가족들의 자아가 분화되었고, 가족성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형성되었다.

치료회기가 거듭될수록 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은 감소하였고, 가족관계는 향상되었다. 특히 의사소통방식이 변화되면서 가족의 대화의 양은 증가하고, 오해도 풀리고, 감정적 교류도 활발하고 가족관계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관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방식이 개선되면서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가 갖는 함의 및 제언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전환기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적응력을 가지지 못할 때에 역기능적 구조를 가진 게 된다는 가족발달주기 관점을 생각해 볼 때에(Carter and McGoldrick, 1989), 본 사례의 가족도 전환기에 위험을 맞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한 시점은 가족의 구심점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진출하던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치료적 개입은 전환기의 가족에게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가족성원들 간의 자아분화와 명확한 경계선으로 인하여 가족갈등이 상당히

감소되면서 가족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사회복지현장에서 전환기의 가족들 특히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족발달과정에서 매단계마다의 새로운 과업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과정에서 가족은 쉽게 해체되고 또한 재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과정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을 많이 경험하는 사회이다. 사회적으로도 고령층과 젊은 층의 문화 및 가치관의 충돌이 많지만, 가족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이 많다. 본 사례에서도 어머니는 큰아들이 채무를 지게 된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30만원으로 생활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적용하여 큰아들을 비난하였다. 물론 큰아들은 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부모-자녀간의 갈등 및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주로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을 뿐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 가족 및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된다는 점(이영미 외, 2005)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미성년이었을 때에는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다가 성인이 된 후에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에 부모-성인자녀의 갈등 및 의사소통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회복지는 오래전부터 가족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의 대상으로 삼았다. 초기 사회사업가들이었던 우호방문자들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가족체계 안에서 활동하였고, 가족치료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사회사업가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Nichols and Schwartz, 2002).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현실은 가족체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서비스전달 등과 같은 외부지원적 활동들은 상당히 활발하다. 그러나 가족내부의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임상적 개입의 실천활동은 약한 편이다. 가족치료는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론을 가지며, 가족이 겪는 고통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효과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문영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실천가들에게 가족치료에 대한 교육과 개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실천의 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

다. 점점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현실에 비추어볼 때에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족치료 및 가족개입의 훈련은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넷째, 본 연구는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해 3가지 가족치료모델을 적용하여 치료와 분석이 진행되었다. 본 사례에서는 가족갈등의 요인을 의사소통 외에도 경계선 및 자아미분화의 문제로 파악하여 접근하였다. 그러나 가족치료는 다양한 모델들과 개입기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자가, 다른 모델들을 사용하면 새로운 개입관점과 치료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성인 자녀들의 갈등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족치료모델의 적용사례들이 연구되고 개입방법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공인숙 · 이은주 · 이주리(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한국생활과학회지, 14(6):925-936.

권재환 · 이은희(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325-351.

김애순(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영희 · 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1-31.

김종옥 역(1988). 가족과 가족치료. S. Minuchin.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서울: 법문사.

노윤옥 · 전미경(2006).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1):1-18.

박은주 · 김경신(1995).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대한가정학회지, 33(4):27-38.

박태영 · 김현경 역(2004). 친밀한 가족관계의 회복: 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의 적용. H. Lerner. 1989. The dance of intimacy. 서울: 학지사.

송성자(2001).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해결중심 접근. 서울: 법문사.

신일진 · 김태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27-44.

안현정 · 이소희(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1): 65-81.

이선혜(2000). 한국에서의 Bowen 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자아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151-176.

이영미 · 민하영 · 이윤주(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녀의 심리 · 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53-6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편(1995). 가족치료총론. 서울: 도서출판 동인.

정연호 · 류점숙 · 신효식(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145-158.

최미혜 · 김경희 · 권혜진 · 김수강(2005). 청소년의 성허용성과 가족기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간호학회지, 11(1):54-62.

최외선 · 김갑숙 · 최선남(2001). 편부모가족 자녀의 의사소통과 특성불안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8(2):191-207.

최인재(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611-628.
한주리・허경호(2004). 가족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 내외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학보, 28:251-282.
한주리・허경호(2005). 가족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202-291.
Becvar C. S., & Becvar R. J.(1993). *Family therapy* (2nd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Berg, I. K., & Jaya, A.(1993). Different and same: Family therapy with Asi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1), 31-38.
Bowen, M.(1966).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Comprehensive Psychiatry, 7*, 345-374.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Carter, B., & McGoldrick, M.(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a frame work for family therapy* (2nd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Colapinto., J.(1991). Structur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 *Handbook of family therapy Vol.* 2, New York: Brunner/Mazel.
Fleming, W. M., & Anderson, S. A.(1986). Individu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person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 308-315.
Goldenberg, I., & Goldenberg, H.(2001). *Family therapy: An overview*. Pacific Group, CA: Brooks/Cole.
Guerin, P. J., Forgaty, T. F., Fay, L. F., & Kautto, J. C.(1996). *Working with relationship triangles: The one-two-three of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Hoffman, J. A., &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ling*, *34*(2), 157-163.
Johnson, E. S., & Bursk, B. J.(1979).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In *G. K.* Phelan, *Family relationships.* Minneapolis, MN: Burgess Pub. Co.
Kerr, M.,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Kim, B. L.(1996). Korean families. In M. McGoldrick, J. Giordano & K. Pearce (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pp. 281-294). New York: The Guilford.
Kim, U.(1991). *Introduction to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Social and applied issu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Hawaii.
Lawson, D. M.(1999). Integrated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In D. M. Lawson & F. F. Prevatt, *Casebook in family therapy* (pp. 27-50). New York: Brooks/Cole.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Nichols, M. P., & Schwartz, R. C.(2002).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Boston, MA: Allyn & Bacon.

Papero, D. V.(1995). Bowen's family systems and marriage.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Patton, M. Q.(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Satir, V.(1982).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

Satir, V., & Baldwin, M.(1983). *Satir step by step*,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Norton.

Weakland, J. H.(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 R. Price(Eds), *Therapeutic conversations*(pp. 123-145). New York: Norton.

Weakland, J., Fischer, R., Watzlawick, P., & Bodin, A. M.(1974). Brief therapy: Focused problem resolution. *Family Process, 13*, 141-168.

Wynne, L. C.(1970). Communication disorders and the quest for relatedness in families of schizpphrenic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0*, 100-114.

Abstract

A case study of family therapy about conflict between mother and the eldest son

Park, Tai-young

(Associat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im, Tae-han

(Doctoral Student,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study had four purposes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 tri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Second, the researcher attempted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 between mother and the eldest son, Third, the study attempted to find the therapist's intervention techniques, which were caused the change of the conflict between mother and the eldest son. Lastly, the study was to find the changed contents of family relationships.

The total family counseling was 13 sessions, which included individual and family counseling. The study used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by using open coding method to find the factors. Also, the researcher used Miles and Huberman's matrix and graphical network display to show the relationships among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s between mother and the eldest son.

The study found the boundary problem of family, family's undifferentiated ego,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and mother's experience from family of origin as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 between mother and the eldest son. On the other hand, the study found that the therapist used the formation of therapeutic alliance relationship, guide of communication skills, the reflection of repeated pattern, reframing and a metaphor as intervention methods. The result of study revealed that changed level of family relationship, activating functional communication, changed boundary among family members, differentiated ego of family members, and changed cognition as the changed contents of family relationship.

Key words : boundary, dysfunctional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 family therapy, undifferentiated ego

Source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3, 2008. 8. pp. 263-302